

일시적

현재에서

오랜 미래를 향한

표류(들)

채은영

임시공간 디렉터

일시적 현재에서 오랜 미래를 향한 표류(들)

채은영
임시공간 디렉터

얼마 전부터 듣는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이 있다. “공간 이름이 임시공간¹인데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니 그렇다. 2016년 가을, 나름 컨셉 있게 ‘재미와 돈이 떨어질 때까지만 해야지’ 싶었는데 올해 여섯 해를 넘겼다. 뭔가 기념할 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비영리-지향 전시공간의 디렉터^{a.k.a} 예술-자영업자의 끝나지 않을 거 같은 사업들과 서류 더미들이 쌓인 가을 틈틈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부끄럽기도 뿌듯하기도 한 순간들을 마주했다.

송도 국제도시에서 세 번의 프로젝트 : 《유령 the invisibles》2009, 《Other Residence : Community Research》2020, 《파산의 기술記述 description of bankruptcy》2021를 할 때다. 도시 담론과 예술적 실천의 많은 기획과 창작이 원도심의 장소성과 역사성으로 집중될 때, 토박이도 귀신도 없다는 간척지 위에 세워진 현재적 도시의 시간성과 장소성, 그 안에 공동체와 관계할 다른 예술에 관한 질문들을 생각했다. 그것은 우리가 지역 혹은 지역성이라 호명하고 문화예술로 재현되는 상상적 지역성을 탈구조적으로 횡단하려는 큐레이토리얼의 시작이었다. 국가와 민족처럼 지역 역시 상상적 무엇일 수 있다는 의문과 질문들이 그것이다.

트랜스-로컬리티와 생태-정치

〈로컬 큐레이팅 포럼〉은 2016년 개항장문화지구 한 켠에 임시 공간을 연 뒤 첫 프로젝트이자 이후 임공² 여러 활동의 방향을 잡아준 기둥 같은 프로젝트다. 2016년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거나 하는 연구자, 기획자, 연구자 12명의 인터뷰로 지역성과 기획매개의 궤적과 인덱스를 만들었다. 2017년은 제주, 전남 순천, 속초, 대구, 인천에서 2-3세대 대안공간 기획자나 독립 기획자들이 지향하는

1

임시공간 space imsi
www.sapceimsi.com
SNS @spaceimsi

2

보통 임시공간을 임공으로 줄여 부르곤 한다.

미술과 지역의 관계 속에서 역사성과 장소성의 로컬리티는 동시대적 공동성의 시작임을 공유했다. 2018년은 ‘사건과 공동체를 주제로 제주 4·3, 4·16 세월호, 여수·순천 10·19 사건과 함께 노동의 도시라는 인천에서 여성 노동의 재현, 콜트-콜텍 파업투쟁, 노동 운동의 영화적 재현을 이야기했다. 2019년은 ‘로컬, 비평, 아카이브’를 주제로 지역에서 비평 매체를 운영하고 글쓰기를 계속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실패 그리고 의미를 광주, 순천, 부산 기획자들과 공감했다. 2020년은 문화예술 교육과 생활문화 중심의 지역 문화기획이 아닌, 시각예술 기획을 위한 주제 발굴 세미나, 전시기획 워크숍, 셀프리서치, 오픈 크리틱을 진행했다. 2021년은 10년 이상 지역 관련 연구 기획을 해온 여성-기획자들이 자신의 활동과 전망을 재점검하는 자리로 진행했고, 6번의 포럼 이후 여러 사정상 잠정 중단했다.

《트리포컬 액션 Trifocal Action》2019은 접경도시 인천이 평화 도시라는 지역성을 지향해 진행하는 ‘서해평화예술 프로젝트’를 재전유했다. 한국전쟁이라는 정치적이고 역사적 평화의 장소성과 역사성이 아닌, 도시와 인간을 위한 전력 공급지로서 남한 최대 화력발전소가 있는 섬영흥도에서 ‘말걸기’와 ‘들여다보기’라는 일시적 수행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근경-중경-원경 초점과 거리 사이 풍경을 만들고, 인천의 섬과 평화 관련 문화예술 활동을 조사하고 매핑하는 ‘실뜨기’로 지역 문화정책과 공공자본³에 설계되고 재생산되는 ‘평화’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의 담론과 재현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지역)예술가를 살펴보았다. 어떤 시작을 할 때 기존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고 메타-해석하면서 프로젝트나 전시를 단계적으로 기획 실행하며 이론과 형식을 테스트하는 방법론은 임공 큐레이토리얼에서 중요하다.

바다 삼부작은 인천이 해양도시라는 정체성과 장소성을 강조하는 데에 착안했다. 대부분 과거적 역사와 가부장적 설화, 산업과 어업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바다와 비인간 존재들, 향수적이고 낭만적 공동체와 관광으로 수렴되는 상징-소비들에서 벗어날, 지역/장소/대상-특수성보단 공통 감각과 인식을 위한 시도였다. 코로나19

3 필자는 공공기금을 단순한 지원 차원이 아닌, 제도 권력의 의미로 공공자본으로 부른다.

팬데믹과 함께 기후위기, 해양생태 주제 전시가 봇물처럼 쏟아져서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거울바다 Paralleled Space》2020는 인천과 시흥 사이 좁은 바다 소래 해협을, 《웃는돌,고래 How The Sea Thinks》2021는 서해부터 동남아시아 바다까지 서식하는 돌고래 상괭이를, 《새의자리 Bird Does Not Exist》2022는 덕적군도에 있는 작은 섬 소야도에서 트랜스-로컬리티의 알레고리로 주목했고 재현과 재생산의 전형과 방법과 거리를 둘 때 발견할 지역성과 예술의 다른 가능성을 기대했다.

부재와 결핍의 재구성과 재배치

인천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고 공공 레지던시인 인천아트플랫폼이 인천시립미술관 역할을 한다. 《人千始湍美述觀 인천시립미술관⁴》은 단순히 시립미술관의 부재보다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블랙홀이 되는 공공 제도와 자본의 상징인 시립미술관의 지연 상황을 전복적으로 구성해 우리가 상상하는 지역-공공-미술관의 전시, 연구, 공공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 개관 전시 《두 번째 도시, 세 번째 공동체》는 한국적 압축-신자유주의에서 서울이 아닌 모든 도시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균질화되는 두 번째 도시의 욕망을 갖는다는 것과 첫 번째 공동체는 출생과 학연의 연고, 두 번째 공동체는 공공 미술에서 대상화된 공동체라 하면 세 번째는 관계적이고 수평적 연대로서 공동체를 상상하며, 인천 원도심본관, 송도 국제도시신관, 서울 영등포본관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개항장 고양이 문화생태 지도》는 개항장문화 지구가 역사적인 개항,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 차이나타운과 짜장면처럼 인간과 자본 중심의 건물과 관광으로 거대한 쇼케이스 같이 상징되고 소비되는 구경거리에서 식물과 동네 고양이, 가려진 사건과 장소 등으로 재구성하는 다른 시간성과 장소성을 가진 관광 지도를 만드는 공공 프로젝트였다.

지역 미술이 문제에서 시립미술관의 부재를 깔때기처럼 반복한다면 비평가 연구의 부재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7년 《人千始湍美述觀 인천시립미술관》 연구에서 시작한 《人千美述인천미술》은 기존

4

인천시립미술관仁川市立美術館이 지역 제도와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미술‘건축물’을 강조한 반면, 人千始湍美述觀인천시립미술관은 다양한 존재들이 샘솟을 아름다움을 지어가는 세계관을 의미한다.

지역 미술 연구 자료의 부족과 관계적 지역 미술 구술과 비평, 그리고 일반적인 미술사 연구 방법의 적용 불가능에 대해, 최근 지역에 직간접적인 활동을 시작한 기획매개자들의 ‘거칠고 근본 없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다. 2017년 여성 미술가 연대기를 위한 연구와 2018-2019년 지역 미술 연표를 위한 연구에 이어 2020-2021년 《人千美述인천미술 : 공간의 공간》은 개항부터 2021년까지 700여 개 인천 전시 공간 조사와 미술 공간과 관련된 글들을 모았고, 2022년 《人千美述인천미술 : 사건의 사건》은 2000년대 지역 역사 문화적 대표 사건 속에 가려진 사건들과 시각문화예술 활동을 신문 형식으로 모았다. 《인천아트아카이브 : 2000년대 전시와 전시공간 연구》²⁰²¹⁻²⁰²²과 《인천미술아카이브 툃킷》²⁰²²는 2000년대 지역 시각예술 기획자나 공간 운영자 그리고 근과거와 현재적 지역 미술의 아카이브 구축과 공공적 활용에 관한 연구다. 이러한 지역 미술 연구는 기존 관계 속에서 역사화하는 대문자로서 인천미술사 Incheon Art History가 아닌,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던 소문자로서 인천 미술의 역사 history of art, Incheon이다.

‘동무비평 삼사’⁵는 2018년부터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역 미술 현장 세미나와 리뷰로 시작해, 2020년 오픈한 인터-로컬 웹진이다. 김영민의 동무 삼부작⁶, 1934년 시작했던 초현실주의 동인지 『삼사문학三四文學』, 정약용이 학문할 때 지켜야 할 태도를 의미하는 서재 삼사재三斯齋에서 차용했다. 소위 ‘한양 컨템포러리’⁷에서의 비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이거나 난해한 주례사, 보도자료의 일부로만 소개되는 신문 기사, 파편화되고 납작한 SNS에서 벗어나, 현재적 기록으로서 지역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작하고 싶은 필자들을 찾았다. 또한 ‘우리동네 공공미술 프로젝트’, ‘평화’, ‘아카이브’, ‘디아스포라’ 등 단순히 인천뿐만 아니라, 국내외 비슷하지만 다른,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활동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느리지만 광활하게 진동하기

임공이 인천에서 2.5세대 비영리-지향 시각예술 공간으로 지난

5 동무비평 삼사 review34.kr

6 『동무와 연인』(2008), 『동무론』(2008), 『비평의 숲과 동무 공동체』(2011)

7 보통 한국현대미술이라고 말하거나 서울 미술이라고도 하지만, 필자는 지역과 서울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에서 한양컨템포러리라고 부른다.

시간을 짧게 살펴보니, 주제로서 ‘트랜스-로컬리티’와 ‘생태-정치’를, 방법으로 ‘부재와 결핍의 재구성과 재배치’를, 태도로서는 ‘느리지만 섬세하게 진동하며 표류하려는 용기’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현실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자본과 사람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공공 제도와 공공 자본으로 수렴되는 트랙과 단계로 예술가의 정체성과 실존을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지역을 지역으로 한정하고 재현하는 기존 시각예술계의 관습과 제도를 분석하며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무언가를 더하는 방식들을 찾으며 지역성을 섬세하게 진동하려 했고 단순한 전시공간으로 역할을 두지 않았다. 이 글에서 소개하지 못한 《캐비닛 아트 페어》²⁰¹⁷, 《인천 오픈 유니버시티》²⁰²⁰⁻²⁰²², 《2022 송도아트위크 Songdo Art Week》²⁰²², 《낮설고 낮선, The Hyperobject Invasion》²⁰²² 등의 프로젝트와 연구들도 그 흐름 안에 있다.

여전히 임시공간은 (지역 작가를 전시에 초대하지 않고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지역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나 운영자의 고향이 인천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지역에서의 시각예술활동은 여전히 출생, 교육, 정상-가족, 정체성, 진정성, 장소성 등과 같은 범주 안에서 호명되고 평가받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공간은 프로그램 C++ 용어에서 매개 변수를 표현하는 imsi []처럼 지금, 여기의 지역과 시각예술이 자본과 제도와와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기 위한 가능성들을 찾기 위한 대항-플랫폼⁸을 위한 좌충우돌과 시행착오와 변화의 연속이었다.

7년 차 시간 앞에서, 지난 시간과 활동의 여러 표류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세히 마주하고, 밀린 숙제들을 다시 꺼내본다. 일시적 현재를 위한 '임시'공간이 오랜 미래를 위한 '상시'공간이 될 수 있을까. 되어야만 할까. 아마 후자를 생각해야 한다면, 인천이란 지역을 연고나 고향으로 낭만화하거나, 범죄도시 마계^{魔界}처럼 부정하지 않고, 지역의 모든 시간과 존재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을 예술가들에게 지역과 시각예술의 다른 관계를 위한 상상과 실천을 위한 다정한 비빌 언덕이 되었으면 한다.

8

임시공간이 위치한 개항장 문화지구와 내항 지역에는 인천아트플랫폼, 누들플랫폼, 상상플랫폼처럼 공공 기관이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채은영

도시 공간에서 자본과 제도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진 시각 예술의 상상과 실천에 관심 많은 인터-로컬 큐레이터로, 트랜스-로컬리티와 생태-정치를 주제로 리서치 기반 큐레토리얼을 지향하는 '임시공간'과 인터-로컬 웹진 '동무비평 삼사'를 운영하고 있다.